
20세기 초기의 신어

송 민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갑오경장(1894)을 거치면서 새로운 문물 지식이나 정보가 나날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실어 나를 언어 표현 수단으로서의 신어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태어난 개화기(開化期)의 신어는 국어 어휘사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개화기의 신어를 ‘20세기 초기’라는 특정 시기로 한정시켜 살펴 보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 개화기 전반을 통하여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생산된 신어를 어느 특정 시기로 한정시켜 정리하기도 어렵거니와, 언어사(言語史)에서 세기(世紀)의 경계를 구분선(區分線)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합리적인 이점(利點)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세기 초기’를 제목으로 내걸고 무턱대고 개화기 전반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초기’라는 개념을 약간

확대하여 그 시기를 얼마쯤 늘려 잡기로 한다. 곧, 갑오경장을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90년쯤부터 20세기 10년쯤까지를 편의상 ‘20세기 초기’로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20세기 초기’라는 개념을 정의하되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를 중심축으로 삼아 그 앞뒤로 10여 년, 도합 20년쯤을 본고의 대상 시기로 삼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신어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 시기의 신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문물을 소화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어보다는 문화어나 전문어일 경우가 많으며, 어형상으로는 2음절의 한자어가 기본적인지만, 거기서 한번 더 발전한 3음절 또는 4음절의 파생어나 복합어일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둘째, 신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 유행성이나 유동성을 띠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 시기의 신어 가운데 문화어인 동시에 전문어에 가까운 쪽의 단어들은 그 생명력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현대 국어로 계승된 사례가 아주 많다. 셋째, 이 시기의 신어는 그 상당수가 대내적, 자생적 변화를 거친 단어들이라기보다 외래적, 조건적 개신(改新)을 겪은 단어들이다. 그만큼 그 어형이나 의미에 외래 요소, 예컨대 일본어 등의 간섭을 받은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의 일본어에 나타나는 신어, 특히 한자어와의 어지적(語誌的) 대조를 거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러한 점들이 이 시기의 신어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면면이라고 할 수 있다.

II. 대역 자료에 나타나는 신어

1. 신어의 성격과 판정 기준

본고는 20세기 초기의 신어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운복(鄭雲復)의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 1907, 大韓皇城 廣學書舖) <약호, “독습”(1907)>이라는 일본어 회화 학습서의 대역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단어가 신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계

일(J.S.Gale)의 “한영즈던”(韓英字典, 1897, Yokohama) <“한영”(1897)>, 같은 책의 제2판으로서 개정판이기도 한 “한영즈던”(1911, Yokohama) <“한영”(1911)>을 함께 이용하기로 한다.¹⁾

사실, 어떤 단어가 전통적 단어인지 신어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편의상 신어에 대한 판정 기준을 총향정명(외)(惣郷正明 외, 1986) <약호 “총향”(1986)>에서 찾도록 할 것이다. 이 책에는 명치 시대(明治時代, 1867~1912)의 신어가 수집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삼는다면 어떤 단어가 당시의 신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본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동안 “독습”(1907)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국어 단어를 일단 개화기의 신어로 해석한 바 있다(송민, 2001, 2005). 여기에 필자의 이전 논의를 간추려 재정리하면서 더러는 잘못을 바로잡기도 하고 더러는 내용을 보완하기도 할 것이다. 모든 예시는 가나다순을 따른다.

1) 19세기 말엽의 신어

극소수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습”(1907)에 나타나는 다음의 신어들 중 몇몇은 이르면 “한불”(1880)에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로 “한영”(1897)에 전통적인 어형과 의미로 올라 있거나 의미의 개신을 보이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 어형에 일본어의 의미 차용이 더해지면서 19세기 90년대쯤부터 신어로 재출발하였거나, 파생어 또는 합성어로 발전한 사례들이다. 특히, “한영”(1897)에

1) 그밖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뿌리의방전교회(1880), “한불즈던”(韓佛字典, 요코하마) <“한불”(1880)>, (2) (?1883), “이언”[언해본](鄭觀應, 易言) <“이언”(?1883)>, (3) 언더우드(1890), “한영즈던”(韓英字典, 요코하마) <“한영”(1890)>, (4) (1891), “나한사전”(羅韓辭典, 홍콩)(원저자 다불위의 원고 완성 시기는 ?1851) <“나한”(1891)>, (5) 유길준(1895), “서유견문”(西遊見聞, 동경) <“서유”(1895)>, (6) “독립신문”(1896. 4. 7.-1899. 12. 4.) <“독립”(날짜)>, (7) 조선총독부(1921),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경성) <“조선어”(1921)>, (8) 게일(1931), “한영대즈던”(제3판, 경성) <“한영대”(1931)>, (9) 문세영(1938),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경성) <“조선어”(1938)>.

반영된 전통적 어형이나 의미 개신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20세기 초기에 해당하는 “독습”(1907)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었던 신어들이다. 우선, 19세기 말엽의 신어로 여겨지는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 경협, 공기(空氣), 교통, 국사범(國事犯), 기상(기상대), 내각(내각총리대신), 대학교, 독립국/독립권, 민권, 발명, 사진, 상표, 생산력, 생활비, 신문(신문지, 신문사), 연설(연설회), 우편(우편국), 운동(운동회), 은행, 자유항(自由港), 전보(電報), 정거장, 증기선(蒸船/汽船), 처분, 처치, 총리대신, 태도, 합중국, 현미경, 화학, 회사(물산회사, 주식회사), 회의

2) 20세기 초기의 신어

다음 단어들은 “한불”(1880)이나 “한영”(1897) 어디에도 올라 있지 않으나 “독습”(1907)에 처음 보인 다는 점에서 당시의 신어들로서, 전통적 단어라기보다 그 어형이나 의미가 일본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한불”(1880)이나 “한영”(1897)에 올라 있지 않는 단어들이라면 20세기 초기의 신어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단어의 대부분은 20세기 초기의 “한영”(1911)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간접, 경제, 공화국, 관병식(觀兵式), 기관(통상기관, 통신기관), 노동자(勞働者), 다신교/일신교, 단체(團體/團體), 대의정체(代議政體), 도서관, 박람회, 반사, 쇠국, 순사, 신사(紳士), 연습(演習), 우승열패(優勝劣敗)²⁾, 위생(위생상), 의무, 의원(議員), 인쇄(인쇄소), 일요일, 잡지, 재정, 제국(제국의회), 제일(祭日), 조직, 증기(수증기), 진보, 철도, 출판, 헌병, 활동사진

요컨대 1)과 2)에 제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총향”(1986)에 명치 시대의 신어로 등록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에는 중국어에 나타나는 사례

2) 진화론의 중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survival of the fittest의 일본식 번역어로서 19세기 80년대에 쓰인 적이 있는 신어에 속한다. 그 후 이 단어는 ‘적자생존’으로 정착되었다(송민, 2000-).

도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유정담(1984)은 일본어에서 유래한 신어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어에서도 신어일 가능성이 한층 높을 것이다.

2. 그 밖의 신어로 추정되는 사례들

“독습”(1907)에 나타나는 국어 단어 중에는 “총향”(1986)과 같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그 어형이나 의미로 판단할 때 당시의 신어로 추정되는 용례들도 많다. 자연히, 그 출현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일지라도 본고에서 내세운 전제대로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선을 크게 벗어나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본고에서 규정한 시기의 신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당시의 신어로 간주되는 사례의 일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음절 구조의 신어

- (ㄱ) 각의(閣議), 감옥, 건강, 건의, 검사(檢事), 견책, 경영, 계급, 공병(工兵), 공사(工事), 공원(公園), 공판, 관보, 광고, 국권, 국기, 국력, 국민, 국채, 국회, 군부, 기사(記事), 기차(氣車/汽車)
- (ㄴ, ㄷ, ㄹ, ㅂ) 논설, 농학(農學), 대표, 동물, 목적, 문법, 문장(文章), 민사(民事), 발견, 발달, 발표, 방법, 법정(法廷), 별장, 병원, 본점
- (ㅅ, ㅇ) 사건, 사업, 사법(司法), 상법(商法), 상업, 상점, 상품, 상황(商況), 선고(宣告), 선편(船便), 세입(歲入), 소독, 소방, 소송, 소장(訴狀), 속력, 수술, 수업(授業), 수입, 수출, 시간, 시계, 시대, 시찰, 식물, 신용, 심사(審査), 양복, 여행, 연골, 연구, 연필, 열차, 영업, 왕진, 외과(外科), 요금, 요리, 요일(曜日), 우선(郵船), 우송(郵送), 운송(運送), 위임, 위원, 의안(議案), 의회, 의학, 이과(理科), 인력(引力), 입법
- (ㅈ, ㅊ) 자격, 자금, 자본, 작용, 재원(財源), 재가(裁可), 재봉(裁縫), 재판, 전고(銓考), 전분(澱粉), 전선(電線), 전신(電信), 전차(電車), 전화(電話), 조례(條例), 조사(調查), 조서(調書), 조인(調印), 조제(調劑), 주사(注射), 주식(株式), 준공, 지점, 징역, 차장, 채표(彩票)³⁾, 천정(天井)⁴⁾,

체조(體操/體操), 체포, 출두, 출발, 출장

(트, 프, 흐) 타진, 탁승, 탐정, 통역, 통화(通貨), 특사(特使), 특사(特赦), 파견, 판로(販路), 판매, 판사, 포병, 학과(學科), 학자(學資), 행정, 형법, 형사(刑事, 경찰직), 형사(刑事, 형사사건), 화물, 화폐, 화씨(華氏), 훈령, 훈시, 훈장, 회장, 휴간, 휴일, 휴직

이들 2음절 한자어가 모두 신어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중에는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위에 제시된 2음절 한자어들은 대역 자료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일본어의 간섭으로 국어에 수용된 신어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에 의미의 추가나 개신과 같은 변화가 뒤따랐을

- 3) ‘彩票’란 ‘福券’에 해당하는 중국어로서 일종의 賭博券인데, 일본에서는 ‘富籤 [tomi-kuzi]=富籤[tomi-kuzi]의札[huda]=富札[tomi-huda]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거둔 후, 抽籤을 거쳐 當籤된 사람에게 큰돈을 몰아줌으로써 요행의 이익을 얻게 하는 놀음이었다. 과거 일본에서 행해진 방식은 主催者が 배포한 패를 사게 한 후, 정해진 기일에 買入者를 모아 놓고, 각자가 가진 패와 동일한 기호가 적힌 패를 섞어 상자에 넣은 채, 위에서 날카로운 기구로 푹 내리 찢러, 거기에 걸려 나온 패와 동일한 기호의 패를 가진 사람을 당첨자로 정했다. 그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일을 ‘富를 산다(富をかゝ)’고 했으며, 추첨하는 일을 ‘富를 찢른다(富をつく)’고 하였다. 그리고 當籤者は 얼마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金澤庄三郎(1936, 新訂 314版), “廣辭林”(三省堂) ‘とみ[富] 項 참조.
- 4) ‘천장’에 대한 일본어. 따라서 ‘天井’은 일본어에 대한 차용어인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불”(1880)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어가 나타난다. ‘텐장 天藏. La voûte de ciel; plafond, grenier, voûte. 입=입—, Palais de la bouche, la voûte du palais’. 그 의미는 ‘天障, 곡식 창고, 등근 天障’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거기에 다시 ‘입=텐장’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한영”(1897)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텐장 天藏 The roof of the mouth’, 그리고 ‘텐장 天障 The ceiling. See 반죽, 반죽 天障 The ceiling. See 텐장’. 맨 앞 쪽의 ‘텐장’은 “한불”처럼 ‘天藏’이라는 한자 표기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입천장’으로 풀이하였다. 다음으로 ‘天幃’은 ‘반죽’(현대 국어로는 ‘반자’)과 같은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데, 다만, ‘반죽’을 나타내는 한자 표기는 ‘天障’으로 되어 있다. 결국, “한영”에는 ‘天幃’과 ‘天障’이 모두 ‘반죽’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한불”의 ‘天藏’이나 “한영”의 ‘天幃’은 다같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영”에 나타나는 ‘天障’ 한 가지 표기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국어의 ‘입천장’에 나타나는 ‘천장’은 ‘반자의 걸면’을 뜻하는 ‘天障’과 語源이 같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어 ‘天井’에 대응되는 국어 단어는 ‘天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독습”(1907)의 저자인 鄭雲復은 이 ‘天障’이라는 국어 단어를 몰랐던 모양이다. 그 때문에 일본어 ‘天井’을 국어에 그대로 가져다 썼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어의 차용이 된 것이다.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일본어의 간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중에는 더러 “한불”(1880)이나 “한영”(1897)에 어형은 같으나 의미가 다르게 풀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전통적 한자어형에 일본어의 의미가 새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의미상의 개신을 겪은 신어로 추정된다.

2) 3음절 구조의 신어

한편, 2음절 한자어가 다시 하나의 접사와 결합되면 3음절의 파생어로 발전한다. 여기에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있는데,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3음절 구조의 파생어들은 그 대부분이 신어에 속하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가해자, 간호부, 감옥서, 개항장, 건축물, 견양서(見樣書), 경무관, 경쟁적, 경찰서, 고아원, 공예품, 공유지(公有地), 관비생, 광업권, 교과서, 교번소(交番所), 교환소, 구람자(購覽者)⁵⁾, 군항지, 귀족원, 기관차, 기념비, 기념회, 기부금, 기숙사, 기억력
- (ㄴ, ㄷ, ㄹ, ㅂ) 낙성식, 농산물, 당국자, 대서소, 도급자, 도기점, 등용법, 망원경, 모욕죄, 모직물, 미간지(未墾地), 미국산(米國產), 방청자, 배상금, 변호사, 보수금(報酬金), 보조화(補助貨), 보좌관, 부동산, 분발심, 분수기, 불공평
- (ㅅ, ㅇ) 사단장, 삼대권(三大權), 소방조(消防組), 소재지, 소지금, 속성과, 송별회, 수뢰정(水雷艇), 수비대, 수비병, 수출품, 수확물, 수양함, 식료품, 신문과(新聞課), 신청금, 실업가, 심상과(尋常科), 심장병, 약제사, 영구적, 영수증, 오예물(汚穢物), 외교가, 외국어, 요리업, 우등상, 월사금, 위경죄(違警罪), 위원회, 위임장, 위조물, 유치원, 유학생, 음식점, 응접실, 의사록, 의연금, 이발사, 이발점, 인쇄소, 인조물, 인판사(印判師), 일년생, 일등지, 일본주(日本酒)

5) 일본어 ‘購覽者’에 대한 국어식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곧, 국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신어인 셈이며 일종의 번역 차용에 해당할 것이다. 개화기의 어느 한쪽에 서나마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독습”(1907)여 기저기에는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 (六) 자치제, 잡보란(雜報欄), 잡화점, 장식물, 재산가, 재판소, 전당국(典當局), 전당물, 전매권, 전문과, 전사자, 전투함, 절도범, 점안수(點眼水), 정치가, 제약법, 제조소, 조선주(朝鮮酒), 조폐국, 졸업생, 주식권(株式券), 주차군(駐筭軍), 중요품, 중의원, 중추원, 지리학, 지방관, 지배인, 지원자, 진단서, 진수식, 진찰료
- (七, 八, 九, 十) 참모국, 참여관(參與官), 채권자, 채무자, 척후병, 천산물, 청원서, 초대장, 초병선(哨兵線), 추도회, 측량대, 치료실, 친목회, 탄생일, 토벌대, 통지서, 특약점, 평리원(評理院), 폭발탄(爆發彈), 피해자, 하숙옥(下宿屋), 한난계(寒暖計), 해관세(海關稅), 해방함(海防艦), 혁명당, 화장석, 환영회

이들 모두가 일본어에서 생성되어 국어에 차용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물론 없다. 개중에는 ‘견양서, 구람자, 도급자, 응접실’처럼 일본어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파생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조어법상으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파생어의 대부분은 ‘고아원, 귀족원, 모직물, 유치원, 중의원’처럼 일본어에서 직접 생산되어 국어에 차용된 신어들로 추정된다. 대역 자료의 특성상 그러한 간섭이나 차용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다.

3) 4음절 구조, 또는 그 이상의 신어

또한, 2음절 한자어가 다시 한번 다른 2음절 한자어나 접사용 한자 형태소와 결합되면 4음절 또는 그 이상의 복합어나 파생어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이들 또한 신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일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격표기, 가(假)사무소, 고등학교, 관립학교, 국정교과서, 군부대신,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기상관측지소(氣象觀測支所), 농림학교, 등록소장(登錄訴狀), 만국연합엽서, 모살미수(謀殺未遂), 무역조사표, 물산회사, 법무보좌관, 변제기한, 보통학교, 사범학교, 사인(私人)단체, 상업시찰, 상업학교, 생존경쟁, 채국주의, 수업시간, 식산사업(殖産事業), 언문일지, 연합연설회, 열대지방, 염세주의, 외교문제, 우선회사(郵船會社), 우편전신, 우편전신사

업, 운수회사, 음악학교, 이민조례, 인신해부술, 저금통장, 전고위원회(銓考委員會), 전권공사, 전권위원, 전문기사, 제일은행권, 조사위원, 주식회사, 창업시대, 척식사업(拓殖事業), 토목건축, 토지소유자, 통신문리국, 한대지방, 해저전신, 화물열차, 활자제조소

여기에 보이는 4음절 또는 그 이상의 파생어나 복합어는 당시의 새로운 문물이나 제도와 관계되는 신어들로서, 이들이 국어에 쓰이게 된 배경에는 일본어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2음절 한자어의 기반 위에서 2차적으로 생성된 파생어와 복합어의 대부분은 신시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신어들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어형과 의미가 거의 그대로 국어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대역자료에서는 원문의 간섭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발 늦게 국어의 신어가 된 일본어 단어

현대 국어라면 다음 각 항목의 앞쪽에 나타나는 일본어는 어형상으로나 의미상으로 국어에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습”(1907)의 대역문에 국어 단어로는 쓰일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일본어와는 다른 어형의 국어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국어의 전통적 한자어나 고유어들이 한동안 일본어의 간섭에 저항했음을 전해준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20세기 초기까지의 한동안은 앞쪽의 일본어가 국어 단어로 전용되기 어려운 생소한 어형들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 때문에 국어 단어로는 뒤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통적 어형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일부의 사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각반(脚絆)/행전(行纏), 감정/정의(情誼), 결핍/절핍(絶乏), 계획(計畫)/계책, 고문(拷問)/형신(刑訊), 공소(控訴)/신소(申訴), 교제/상중, 교집, 구독자/구람자(購覽者), 극동/동양, 금융/전정(錢政), 물품/물화(物貨), 부채/빚, 분배

6) 진화론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struggle for existence의 일본식 번역어. 이 번역어가 일본에서 창안된 시기는 19세기 80년대 초엽이었다(송민, 2000-).

(分配)분배(分排), 비용/경비, 부비(浮費), 비상-/대단(大段, 大端), 상륙/하륙(下陸), 세금/세전(稅錢), 세탁/빨넌, 수해(水害)/수재(水災), 실책/낭편, 실패(失敗)/봉패(逢敗), 양패(良貝), 량편, 안내/인도, 연말/세말(歲末), 영업/생애(生涯), 요도/신경(腎莖), 要領/경위, 요리/음식, 운반/이운(移運), 운전/운용, 월말/월종(月終), 유행-/시체(時體)로 낚다, 시체(時體)다, 의상/의복, 일체-/윈갓, 입항-/드러오다, 자양물(滋養物)/보양(補養)할 것, 자유-/임의, 장부(帳簿)/치부(置簿), 재료/감, 주금(株金)/고금(股金), 주문(注文)-/맛초-, 기별하-, 주소씨명/주거성명, 지방(脂肪)/기름, 직공(職工)/공장(工匠), 청구서/청원서, 추측/짐작, 친절-/다정-, 품행/행실, 필요-/소용, 요긴-, 함수수(含嗽水)/양치약, 항만/개항장, 해석/설명, 현금/즉전(卽錢), 직전(直錢), 홍수/창수(漲水), 환자/병인(病人), 효력/효험, 희망/소망

더구나, 일본어 ‘교제, 비상-, 실패, 요리, 주문(注文)-, 필요-’와 같은 단어는 어쩌다 한두 번 국어 단어로 채택되어 쓰였을 뿐, 상대적으로는 그와 어형이 다른 전통적 국어 단어가 훨씬 자주 선택되었다. 나아가, 일본어 ‘자유-, 유행-’, 그리고 위의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의(注意)’와 같은 일본어 단어는 아예 한번도 국어 단어로 적어 쓰인 적이 없다. 나아가, 일본어에 저항한 전통적 국어 단어 가운데에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빨넌, 빗, 윈갓, 드러오다, 감, 맛초-, 기름’ 등과 같은 고유어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한영”(1911)에 이르면 위에 보인 일본어 단어가 결국은 국어 단어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각반, 감정, 결필하다, 계획, 고문하다, 공소, 교제, 구독하다, 극동, 금융, 물품, 부채, 분비, 비용, 비상하다, 상륙하다, 세금, 세탁하다, 슈히, 실칙하다, 실패, 안넌, 년말, 영업, 노도, 요령, 료리, 운반하다, 운전하다, 월말, 류형하다, 의상, 일체, 입항하다, 즈양물, 즈유-, 장부, 지료, 주금, 주소, 지방, 직공학교, 청구, 추측, 친절하다, 품행, 필요하다, 함수-, 항만, 히석, 현금, 홍수, 환자, 효력, 희망’과 같은 일본어 단어들에 “한영”(1911)에 국어 단어로 당당히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모두가 꼭 일본어일 수만은 없다. 개중에는 국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건

일본어에서 넘어온 이들은 한동안 국어의 전통적 단어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이내 국어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독습”(1907)에서 얼마간의 저항을 겪어야 했던 이들 일본어 단어들은 이내 국어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뒤늦게 신어의 대열에 합류한 존재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동안 저항을 감행했던 전통적 국어 단어 가운데에는 그 후 입지가 점차 허약해지거나 소멸의 길을 걸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대 국어로 검증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어

개화기, 좀 더 범위를 좁힌다면 20세기 초기를 전후한 시기에 생성된 신어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문화어요, 전문어요, 한자어일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일본어의 간섭에 따라 어형이나 의미가 국어에 차용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때의 신어들은 그 후 국어에 정착되어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처럼 개화기, 곧 20세기 초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태어난 신어들은 국어의 어휘 체계 변화나 개신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어의 근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독습”(1907)에 나타나는 일련의 국어 자료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참고 문헌 |

宋 敏(1994), ‘갑오경장기의 어휘’, “새국어생활” 4-4, 국립국어연구원, pp. 54~73.

- _____ (2000ㄱ), ‘開化期 國語에 나타나는 新文明 語彙’, 국민대, “語文學論叢” 19, pp. 25~57.
- _____ (2000ㄴ), [어원탐구] “生存競爭’의 주변”, “새국어생활” 10-3, pp. 121~126.
- _____ (2001), ‘개화기의 신생 한자어 연구(1)’, “語文學論叢” 20, pp. 33~77.
- _____ (2002), ‘개화기의 신생 한자어 연구(2)’, “語文學論叢” 21, pp. 53~95.
- _____ (2003), ‘개화기의 신생 한자어 연구(3)’, “語文學論叢” 22, pp. 1~34.
- _____ (2005), ‘개화기의 신생 한자어 연구’, 片茂鎮 외 공편, “獨習日語正則, 解題索引研究 原文”, 서울: 불이문화사, pp. 517~630.

馬西尼 原著/黃河清 譯(1997), “現代漢語詞匯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劉正琰·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4), “漢語外來詞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齋藤 毅(1977), “明治のことば”, 東경: 講談社.

佐藤 亨(1983), “近世語彙の研究”, 東경: 櫻楓社.

_____ (1986), “幕末·明治初期語彙の研究”, 東경: 櫻楓社.

鈴木修次(1981), “文明のことば”, 廣島: 文化評論出版.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明治のことば辭典”, 東경: 東京堂出版.

槌田滿文(1983), “明治大正新語流行語”, 東경: 角川書店.

廣田榮太郎(1969), “近代譯語考”, 東경: 東京堂出版.